



2017 IMS Photo Contest

① Mountain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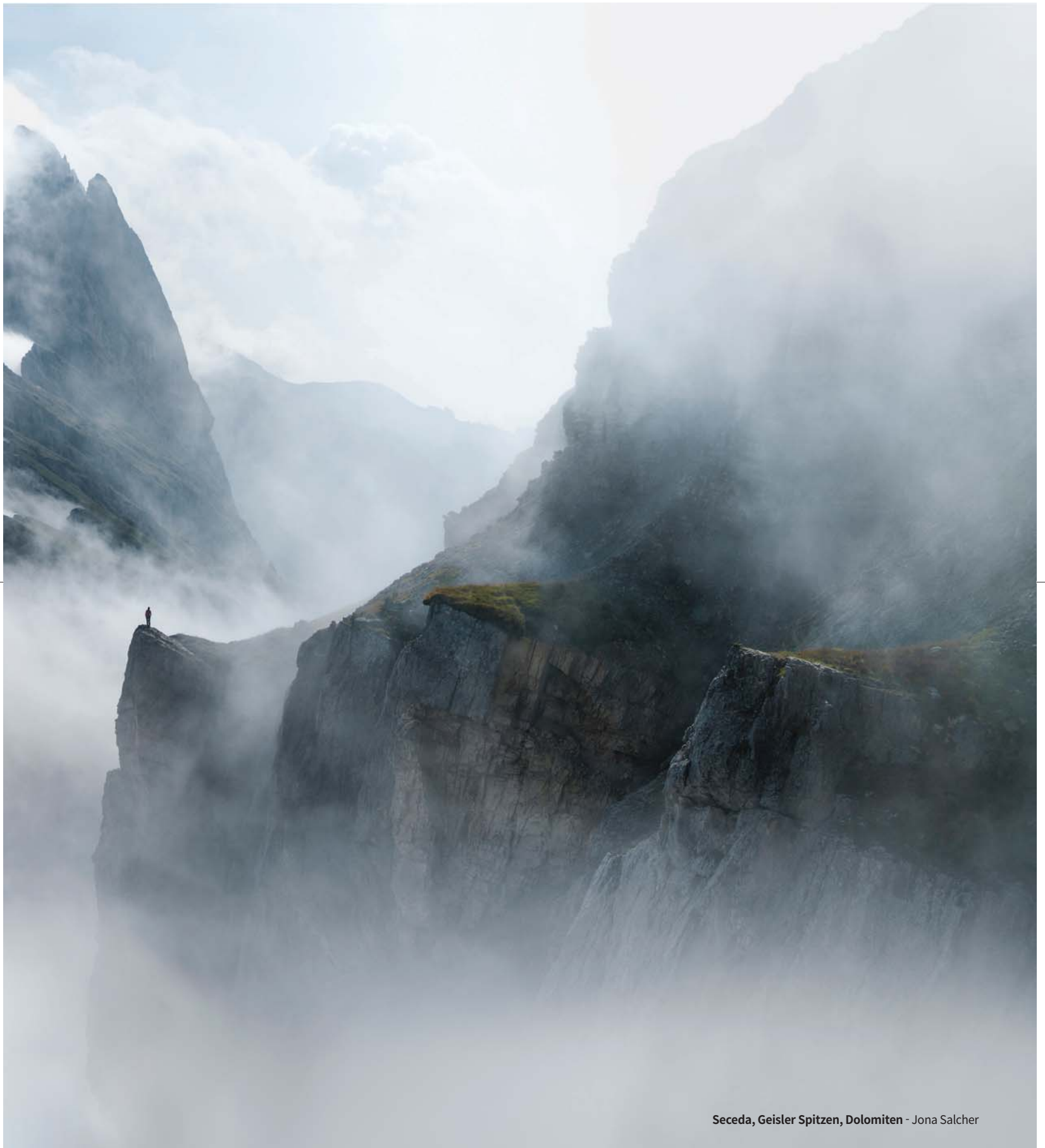
46억 년 역사의 지구, 영원한 신비

빛과 안개, 눈과 물, 밤과 별, 사막 그리고 괴이한 산줄기...

사진 IMS 제공 글 한필석 편집장



46억 년 전 형성됐다는 지구. 원시 지구는 중력에 의해 주변의 미행성체들을 끌어당기고 충돌하면서 점차 커져 갔다. 이렇게 영겁의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변화와 변신을 거듭했으리라.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 땅을 뒤덮은 도로와 건물 그리고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내는 오염물질로 태곳적 자연미와 순수미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신비감마저 사라진 건 아니다. 구름안개는 언제나 자연을 신비롭게 변신시키고, 계절은 새 옷을 갈아입히며 모습을 바꿔 준다. 밤하늘의 별은 오로라와 어우러지면서 황홀경을 연출하고, 사막의 선과 면은 아름다운 여체를 보는 듯 가슴 두근거리게 한다. 거대하고 힘찬 산봉 산줄기 또한 가슴 벅차게 한다. 이 모든 게 지구이고, 대자연이다.



Seceda, Geisler Spitzen, Dolomiten - Jona Sal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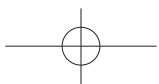


Mount Huber(Canadian Rocky Mountains) - Andrey Podkoryt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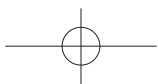


Eggishorn - Fredric Huber





Vatnajökull - Rainer 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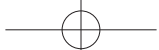




Maranjab - Amin Dehghan







Pragser und Sextner Dolomiten - Manuel Plaickner





국제 산악 정상 회담... '만남, 산, 사람 그리고 영혼'

2009년 이후 2016년까지 7만2,770명 참가, 유명 산악인 162명 초청

글 임덕용 꿈속의 알프스 등산학교 사진 IMS 제공



지난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북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접경 산악 도시 브레사노네Bressanone에서 자연에 대한 극한 도전을 하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그들의 도전에 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로 진행된 행사는 '만남, 산, 사람, 영혼'을 주제로 하여, 세계 각국의 산악계와 산악문화를 이끌어 가는 정상급 산악인들이 대거 참가해 세계 산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자리에서 산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미래 등반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IMSInternational Mountain Summit에는 살아 있는 산악계의 전설 라인홀트 메스너와 그와 함께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을 이룩한 페터 하벨러 Peter Habeler가 75세를 맞아 '75년간의 등반 세상'을 강연했고, 프리 솔로 등반으로 최첨단 등반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알렉스 호놀드Alex Honnold 등 세계적인 등반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산과 자연 사진작가로는 파올라 마르첼로Paola Marcello, 미카엘 마틴Michael Martin과 배우 사무엘 코치Samuel Koch, 산과 자연 영화감독으로는 쿠르트 모제Kurt Moser, 한스 페터 스타우버Hans-Peter Stauber, 스포츠인으로 패럴림픽

Paralympic 금메달리스트 미카엘 테버 Michael Teuber, 세계 스키 챔피언 페터 필Peter Fill, 슈퍼 모델 출신이며 베이스 점퍼로 유명한 로베르타 만치노Roberta Mancino가 참가했다. 그외 스포츠 의학 박사와 연구로 유명한 박사들이 모여 스포츠 의학에 관한 주제 발표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자와 여러 유명 저널리스트 등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연사로 나섰다.

전시회, 하이킹, 캠프 등 행사 다양

2009년 이후 매년 열리는 IMS에는 2016년까지 7만2,770명이 행사에 참가했고 162명의 유명 산악인이 초청됐다. 한국 여성산악인 오은선을 비롯한 전 세계 유명산악인 451명이 포럼에 참가했고, 85만8,000명이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산악정보를 공유했다. 세계 각국의 기자 879명이 행사를 취재했으며 6,850번에 걸쳐 국제적인 산악 잡지나 신문 등에 기사화됐었다.

이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은 '산악 문화 전달'로서 산을 전문적으로 오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 자연 그리고 극한 도전을 하는 전문가들을 연결



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영화와 주제 발표 그리고 행사에 참가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산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도전, 영감, 영혼을 좀더 가깝게 만나게 해주는 게 목적이다.

IMS는 초청 인사들의 연설 외에 전시회, 하이킹, 캠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다.

10월 9일 오픈 행사로 영화 ‘아마다블람 Ama Dablam’이 인기리에 상영됐으며 영화 제작자와 감독들의 제작 의도와 과정, 유럽 여러 방송 기자들의 영화 평 등 부연 설명이 있었다.

10일에는 ‘IMS Charity Night’로 어린이부터 성인과 전문 선수들의 운동법과 경기력 향상은 물론 겨울 스포츠의 학에 관한 여러가지 발표가 있었다.

11일에는 산악 사진작가로 유명한 파올라 마르첼로와 로베르타 만치노가 그들의 보석 같은 사진들을 보여 주며 자신의 사진세계와 전 세계 산과 자연을 돌며 사진에 전념해 온 그들의 인생관, 예술관, 도전 과정을 들려주었다.

매일 산행과 저녁에는 주옥같은 강연이 있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0월 14일 열린 IMS 포토 콘테스트 Photo Contest 시상식이었다. 이 행사에서 솔로 등반의 세계와 미래를 설명한 알렉스 호놀드의 강연으로 꽃을 피웠다.

월간산, 아시아 대표 공식 미디어 파트너

세인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진 콘테스트는 Mountain Nature산과 자연, Mountain Action산에서 행해진 포퍼먼스 등반이나 스포츠, Mountain Water산과 물 주제 사진, Team Spirit산에서의 팀 스포츠나 팀 레저 사진, Mountain Mobile산과 자연에서 촬영한 스마트 폰 사진, Mountain Faces산과 자연에 도전한 인간의 인물 사진 6개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지난봄 <월간산>이 아시아를 대표해 IMS와 공식 미디어 파트너 계약을 맺어 매년 ‘국제 산악 사진 콘테스트 IMS PHOTO CONTEST’ 수상작 작품을 연재할 것이며, 국내 산악 사진작가들의 국제 무대 진출에도 한 몫 할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간산은 6개 부문으로 나뉜 IMS 수상작 및 응모작품을 이달부터 6회에 걸쳐 연재한다. ☞



1 금년 산악사진 부문 대상 수상작 ‘Colima Volcano’. 작가 Sergio Tapiro Velasco. 2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는 새로운 정보가 많았다. 3 매일 저녁 포럼 전에는 유명 산악인들과 돌로미테 여러 코스를 산행했다. 4 미국의 프리 솔로 클라이머 알렉스의 인기는 트레커들에게도 매우 높았다. 5 메스너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무산소 알파인 스타일 등반을 한 페터 하벨러가 그의 75년간의 산행을 강연하고 다음날 산행에서 서명을 해주고 있다. 6 산행 중 말가(목동들의 집)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